

들어가는 글

경기도 어린이 여러분!

도로명주소에 들어가는 도로 이름은 어떻게 지었을까요?
도로의 이름은 옛날부터 쓰던 도로 이름, 마을 이름,
역사적 인물, 문화재, 방위 등으로 이름을 지어요.

경기도에서는 여러분이 도로명주소에 한 걸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역사적 위인들의 이름을 사용한 도로명으로 동화책을
제작해 보았어요. 작은 동화책이지만, 경기도 도로명에 숨겨진
역사 위인들의 업적과 도로명을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재미있는 경기도 도로명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너 이름이 뭐니?

경기도 도로명 이야기 위인편



※ 본 저작물은 비매품이며, 저작권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e-book으로 제작된 파일은 경기도 전자책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

I. 도로명주소로 어디든지 척척! 6

II. 위인들의 도로명 이야기

서희로	8	권율대로	28
최루백로	10	석봉로	30
송문주로	12	이대원로	32
공양왕길	14	성호로	34
양녕로	16	세자로	36
세종로	18	정조로	38
만리길	20	흥선로	40
남이로	22	어재연로	42
사임당로	24	명성로	44
울곡로	26	안재홍로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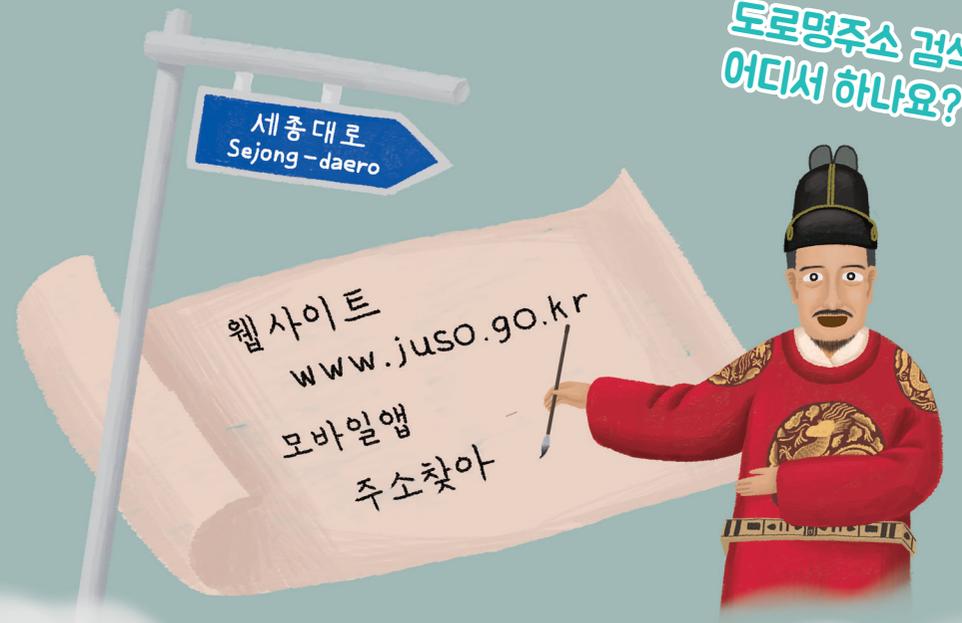
도로명주소란?

도로명주소는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마다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를 부여해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시하는 주소예요.

우리나라는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공법 관계의 주소로 사용하게 되었고, 기존에 사용하던 지번 주소는 땅의 주소로만 이용하게 되었어요.

도로명주소에는 경기도 곳곳의 위인들의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도로명주소 검색은 어디서 하나요?



웹사이트
www.juso.go.kr
모바일앱
주소찾아



수원 화성은?

▽ 2~7차선 도로변에 위치한 건물이에요.

- 00대로 : 폭 8차로 이상
- 00로 : 폭 2~7차로
- 00길 : 로 보다 좁은 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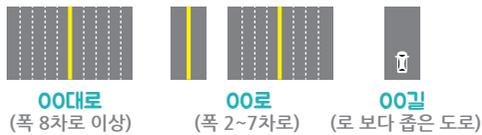
▽ 주 출입구가 정조로를 향해 있어요.

▽ 도로가 시작하는 곳에서부터 8.250m 지점에 위치한 건물이에요.

▽ 건물번호가 홀수이기 때문에 정조로의 왼쪽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도로명주소로 어디든지 착착!

1 도로명은 도로의 폭에 따라 이름이 달라요.



'권율대로', '둔촌대로'

'정조로', '세종로'

'공양왕길', '만리길'

2 건물번호는 도로가 시작하는 곳부터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4 도로명주소는 이렇게 써요.

- ✓ 도로명은 붙여 씁니다. 팔달로 127번길 (O) 팔달로 127번길 (X)
- ✓ 도로명과 건물번호 사이는 띄어 씁니다. 팔달로127번길 54-11(O) 팔달로 127번길54-11(X)
- ✓ 건물번호와 동/층/호 사이에는 쉼표(.)를 사용합니다. 경기도청로 3, 101동 102호 (O)

5 건물번호판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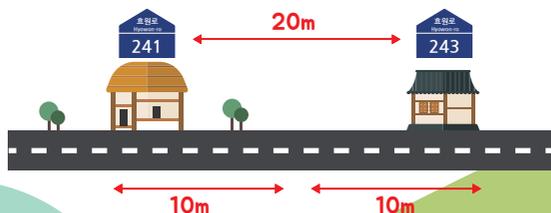
일반용

일반용은 2가지가 있어요.

관광서용

문화재/관광지용

3 건물번호는 10m 간격이라는 것! 꼭 기억해요.



6 도로명판은 어떻게 붙까요?

권율대로 Gwonyul-daero	1 → 699	★ 나의 위치는? 권율대로 1 오른쪽으로 가면 권율대로 699번까지 있어요. (도로 길이는? 699x10m=6,990m)
92 정조로 Jeongjo-ro	96	★ 나의 위치는? 정조로 94 왼쪽(-)은 92번 이하의 건물, 오른쪽(-)은 96번 이상의 건물이 있는 교차로예요.
사임당로 Saimdang-ro	200 ↑ 50	★ 나의 위치는? 사임당로 50 앞쪽으로 가면 사임당로 200번까지 있어요. (도로 길이는? (200-50)x10m = 1,500m)

서희 (942~998)

고려 시대 최고의 외교관
서희의 이름을 반영했어요

서희로

시작하는 곳
이천시 중리동 450-28



길이는 1.030m

끝나는 곳

이천시 창전동 429-8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유능한 외교관을 꼽으라면 바로 서희라고 할 수 있어요.

서희는 거란족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거란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고 거란족 장군 소손녕을 직접 만나요. 소손녕은 서희에게 바닥에 엎드려 자신에게 절을 하라고 했지만 서희는 “나는 고려의 왕이 보낸 사신이니 사신으로 대우해 주시오.”라고 당당하게 말해요. 이후 소손녕과 대화를 한 서희는 거란이 송나라와 관계를 끊기 원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고려가 송나라와 관계를 끊는 대신에 압록강 동쪽 280리 지역(강동 6주)을 돌려받기로 협상을 이끌어 내요. 거란은 뒤늦게 이 지역이 중요한 군사 지역인 것을 알고 되돌려달라고 했지만, 고려는 거부했어요. 이렇게 서희는 전투를 하지 않고 현명하게 영토를 확장한 유능한 외교관이었습니다.



고려 의종 때 효자로 널리 알려진 최루백은 효성이 지극하여 수원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소문이 자자했고, 한림학사 벼슬까지 오른 분이예요. 어느 날 최루백은 사냥을 나간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갔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최루백은 겨우 15세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늘과 같은 나의 아버지가 범에게 해를 당했는데 자식 된 도리로 그 호랑이에게 어찌 원수를 갚지 않으리요.”라고 말하며 산에 올라 호랑이를 잡고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다고 해요. 3년간 무덤 곁을 지키는 ‘시모살이’를 했을 정도로 효심이 지극했대요. 그 후 조선 세종 대왕은 용감한 최루백의 이야기를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라는 책의 ‘효자편’에 실었고, 숙종 때는 최루백의 효자비가 세워졌답니다.



최루백 (???~1206)

고려 시대의 효자 **최루백** 효자각이 근처에 있어 **최루백로**라고 지었어요.

최루백로

시작하는 곳
화성시 봉담읍 상리 34-24

시작

끝나는 곳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산17

길이는 4.631m

송문주 장군 (???~???)

고려 몽고 침입 때 활약한 **송문주 장군**을
기리기 위해 **송문주로**로 지었어요

시작하는 곳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867-3



길이는 8.493m

끝나는 곳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41-8

송문주로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예요. 1231년에는 몽골군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는데 그때 송문주 장군이 물리쳤어요.

전투에서 패한 몽골군은 1235년 재차 우리나라를 침략하였고 송문주 장군은 죽주산성으로 피란했어요. 몽골군은 산성을 포위하며 송문주 장군에게 항복할 것을 권유했는데, 적의 장비와 작전을 파악한 송문주 장군은 성문을 열고 기습하면 전투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일시에 기습하여 많은 적군을 물리쳐 퇴각하게 했어요.

이처럼 적의 작전을 모두 알고 우리나라를 지킨 송문주 장군을 백성들은 '귀신' 또는 '신명'이라고 불렀답니다.



공양왕 (1345~1394)

★ 한국 최초의 지폐를 만든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의 이름을 따서 '공양왕길'이라고 지었어요.

공양왕길

시작하는 곳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372-4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종이돈, 지폐는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공양왕은 1389~1392년의 짧은 재위 기간 동안 닳나무 껍질로 만든 최초의 종이돈인 '저화'를 만들었어요. 저화 1장으로 쌀 2말을 살 수 있었고, 배 한 필은 저화 40장이 필요했대요.
 물물교환이나 금속 화폐인 엽전 등을 사용하다가 공양왕 3년에 처음으로 저화를 만들어 사용했으니 큰 변화가 생긴 것이지요.
 그러나 태조 때 불태웠다가 태종 때 다시 발행하기 시작해서 90년간 유통되었다고 해요. 긴 세월이 지나 지금은 지폐보다 더 간편한 신용카드로도 물건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공양왕길은 고양시의 고려 공양왕릉으로 이어지는 길 이름이랍니다.

양녕대군 (1394~1462)

양녕대군이 17년간 살던 곳을
지나는 도로라 '양녕로'로 지었어요.

양녕로

시작하는 곳
이천시 모가면 양평리 340-21



양녕대군은 태종의 많은 자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는 행운을 얻었어요. 당시에는 왕의 장남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큰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조선의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양녕대군은 자유분방한 성품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왕세자로서 지녀야 할 예의범절을 잘 지키지 못했고, 궁중 생활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였어요. 결국 반복되는 *탈선과 왕에 대한 *항명으로 궁궐에서 쫓겨나는 비운의 왕자가 되고 말았지요. 하지만 이러한 양녕대군의 일탈은 동생인 세종(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넘기고자 정치적인 이유로 일부러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탈선 : 말이나 행동이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것
*항명 : 명령이나 제지에 따르지 않고 반항하는 것



세종 대왕 (1397~1450)



한글을 창제한 '세종 대왕'이
여주에 모셔져 있어서 '세종로'라 지었어요

사랑하는 곳
여주시 홍문동 453-59



세종로



조선 시대 이전까지 우리 조상들은 한자로 글을 적었어요.
먹고살기 바쁜 백성들은 어렵고 복잡한 한자로 인해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를 안타깝게 여긴 세종 대왕이 한글을 만들기로 결심
했어요. 당시에 한글을 만드는 것은 중국과 다른 문자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큰 나라에 대한 예의에 어긋난다며 반대하는 학자도 있었지만 세종 대왕은
뜻을 굽히지 않고 1443년 드디어 한글을 만들었어요.

훈민정음 서문에 보면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어도 그 뜻을 펴지 못한다. 내가 이것을 딱하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들이 쉽게 익혀서 날마다 편리
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라고 적혀 있어 세종 대왕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선 시대 학자이자 집현전 수장이었던 최만리는 뛰어난 학자였어요.
 최만리는 관직에 있으며 관직 수행 능력과 청렴함, 근검, 도덕성 등을 높게
 평가받아 이상적인 관료를 부르는 호칭인 '청백리'를 부여 받았어요.
 '청백리'는 조선 왕조가 유지된 519년간 공식적으로 단 218명밖에 부여
 받지 못했는데 그중 한 명이 최만리입니다.
 최만리는 세종 대왕을 매우 따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세종 대왕의 건강이
 악화될까 걱정해 한글 창제에 반대하기도 했대요.

최만리 (???~1445)

조선 시대 유명학자 '최만리'를
 기리고자 '만리길'이라고 지었어요.

만리길

시작하는 곳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248-1



길이는 1.457m

끝나는 곳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 179-1



남이 장군은 16살에 무과에 급제하고 여진족을 물리치는 등 큰 공을 세운 장수였어요. 남이 장군이 왕의 총애를 받자, 이를 시기한 유자광은 역모를 꾸미게 돼요.

어느 날 남이 장군이 하늘에서 혜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것은 곧 목은 것이 사라지고 새것이 올 징조이다.”라고 했는데, 유자광은 왕에게 남이 장군이 왕의 자리를 넘보았다고 거짓말을 해요.

결국 남이 장군은 왕에게 오해를 받아 28살 어린 나이에 역모죄로 죽게 되고 유자광은 남이 장군의 부와 권력을 차지하지요. 그로부터 380년이 흐른 뒤에야 남이 장군의 무죄가 인정되었어요.

화성시에서는 억울한 그의 원혼을 달래고 충절을 기리기 위해 매년 음력 10월 1일에 ‘남이 장군 사당제’를 열고 있습니다.



남이 장군 (1441~1468)

억울하게 죽은 남이 장군의 묘가 근처에 있어 '남이로'로 지었어요.

남이로

시작하는 곳
화성시 남양읍 수화리 601-10

시작

끝

길이는 4.501m

끝나는 곳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1364

신사임당은 울곡 이이의 어머니로 널리 알려졌지만 시와 그림에 능한 훌륭한 예술가이기도 해요.

신사임당은 7살 때부터 스승 없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세종 때 몽유도원도, 적벽도, 청산백운도 등 안견의 산수화를 보면서 그렸고 특히 풀벌레와 포도를 잘 그렸어요.

현재 신사임당은 어머니로서의 삶이 더 부각되어 있지만 당대에는 산수화를 잘 그리는 화가로 명성이 자자해 안견 다음가는 최고의 화가라고 불리기도 했지요. 2009년 6월 23일에 발행된 5만 원권에는 신사임당의 초상이 들어가게 되어 우리나라 화폐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성이 되었답니다. 초상 뒤에 나오는 ‘묵포도도’와 ‘초충도’가 바로 신사임당이 그린 그림이에요.



신사임당 (1504~1551)

현모양처이자 뛰어난 예술가였던
신사임당의 묘가 있어 **사임당로**라고
도로명을 지었어요.

시작하는 곳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665-1

길이 9.679m

끝나는 곳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 400-1

사임당로



이이 (1536~1584)

조선 중기 대표적인 학자인 '이이'의
호를 이용해서 '울곡로'로 지었어요

울곡로

시작하는 곳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109-6

끝나는 곳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산23-2

길이는 31.248m

어려서부터 총명함과 뛰어난 학문적 기질을 가진 울곡 이이는 8살 때 시를 지을 정도로 똑똑했어요. 또 공부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서 9번이나 장원에 급제하였고 20여 년간 관직 생활을 했어요.

오랫동안 관직을 지낸 울곡 이이는 오래된 *폐습이 결국 나라를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씩 고쳐 나가서 궁극적으로는 나라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글을 써서 왕에게 바친 글이 <<동호문답>>과 <<만언봉사>>랍니다.

울곡 이이는 이렇게 시대의 지식인으로 살면서 나라와 백성을 많이 생각했고, 오늘날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로 남게 되어 5,000원 지폐에도 실리게 되었답니다.

*폐습 : 나쁜 버릇을 뜻하는 말로, 국가의 폐습은 국가가 나쁜 행위를 반복하는 것



행주 대첩은 1593년 행주산성에서 권율 장군이 조선군과 백성을 이끌고 일본군 3만여 명을 크게 물리치고 승리한 전투예요.

권율 장군은 행주산성에 진을 치고 있었고 산성 안에 있던 우리 군사는 물론 인근에 사는 부녀자들까지 합세하여 열두 시간 동안 무려 아홉 차례에 걸친 맹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했지요. 당시 부녀자들은 앞치마로 돌을 담아 날라 공을 세웠고, 이 전투에서 부녀자들이 돌을 날랐던 짧은 치마를 ‘행주치마’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해요.

이러한 행주 대첩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고양시에서는 1741년부터 행주산성 인근의 행주서원 기공사에서 행주 대첩 제례와 문화행사를 열고 있어요.

★ 행주 대첩을 승리로 이끈 **권율 장군**의 이름을 따서 **권율대로**라고 지었어요.

시작카운트 굿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산48

시작

끝

길이는 9.109m

끝나고 굿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671

권율대로



가평 군수를 지낸 서예가
'한호'의 호를 인용해서 '석봉로'라고 지었어요

석봉로

시작하는 곳
가평군 가평읍 하색리 6-1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한석봉은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했지만 집안이 가난해서 서당에 다닐 수 없었어요. 서당에 가지 못한 어린 한석봉은 글이 너무 쓰고 싶어서 돌과 항아리에 물을 찍어서 글을 쓰며 글쓰기 연습을 해요. 그런 모습을 본 한석봉 어머니는 아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 떡을 팔아 글공부를 할 수 있게 한석봉을 떠나보내요.

그런데 어느 날,

한석봉은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며 어머니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불을 끄고 떡 찢기와 글쓰기 솜씨를 비교해 보자고 제안했는데 어머니가 찢은 떡은 두께가 일정하게 잘 잘려있었지만 한석봉의 글씨는 비뚤비뚤했어요. 이것을 본 한석봉은 자신의 노력이 어머니에게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글공부를 떠났고, 열심히 노력해서 훗날 최고의 명필가가 되었답니다.



이대원 장군 (1566~1587)



'이대원 장군' 요가 근처에 있어
'이대원로' 도로명을 지었어요

이대원로

시작하는 곳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18-59



길이는 4.176m

끝나는 곳

평택시 포승읍 방림리 산75



1587년 남해안에 왜구가 침입했는데 이대원 장군이 왜구를 물리치고
적의 장수를 생포했어요.

그러자 왜구는 더 많은 군사를 이끌고 여수 앞바다에 다시 침입했어요.
이대원 장군은 물러서지 않고 용맹하게 싸우다 적에게 체포되었는데
끝내 항복을 거부하다가 죽게 돼요.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이대원
장군을 그리며 평평 울면서 애도가를 불렀다고 해요.

“아 슬프다

녹도 만호 이대원 장군

오직 나라 위한 충신이셨네

배는 바다 속으로 가라앉고

장수들 물러가고 포로가 되었어도

백만 적진 가운데서 주먹을 휘둘렀다네”



안산의 첨성리(지금의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서 농민과 함께 생활한 성호 이익은 백성의 삶이 궁핍하고 어렵다는 것을 보면서 농민이 살기 좋은 세상을 항상 고민했어요.

그래서 노비를 점차적으로 해방시키고 양반도 일을 해야 한다는 '사농합일'을 주장하며 농민을 대변했어요. 그런 이익은 자신의 신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많은 제자를 길러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좋은 나라가 되려면 우리나라도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탈피하고 우리 고유의 정통성을 발전 시키자고 주장하며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삶을 살았던 조선 시대의 유명한 학자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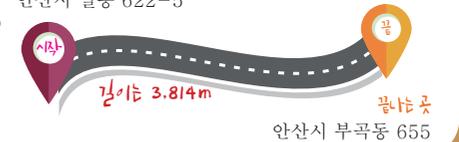


이익 (1681~1763)

'이익' 선생의 묘가 근처에 있어 이익의 호를 이용해서 '성호로'라고 지었어요

성호로

시작하는 곳
안산시 일동 622-5



끝나는 곳
안산시 부곡동 655

조선 제21대 왕 영조는 42살이 되어서야 왕위를 물려줄 귀한 늦둥이 아들인 사도 세자를 얻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도 세자는 아버지의 명령으로 작은 쌀 향아리인 뒤주에 갇혀 굶어 죽게 되었답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록을 보면 엄한 아버지였던 영조는 항상 아들이 못마땅해 꾸짖었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사도 세자는 학문을 멀리하고 온갖 말썽을 부렸다고 해요.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다고들 하는데,

우리 사도 세자가 뒤주에 갇히던 날의 기록을 함께 볼까요?

“세자의 천품과 자질이 탁월해 임금이 매우 사랑했는데, 10여 세 뒤부터 점차 학문에 태만하게 되었고, 대리청정한 뒤부터 질병이 생겨 천성을 잃었다.”



사도 세자 (1735~1762)

★ 비극의 왕세자인 '사도 세자'의 무덤이 있어 '세자로'라고 지었어요. ★

세자로

시왕하는 곳
화성시 정남면 폐랑리 924-25

시왕

길이는 4.961m

관하는 곳
화성시 안녕동 187-12



모든 백성이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 정조 대왕은 오랜 고심 끝에 세계 최초의 계획도시인 수원 화성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와 외국의 훌륭한 기술을 적용해서 2년 6개월 만에 완성했다고 해요. 실제로 정조 대왕은 수원에 화성을 지으면서 *‘호호부실 인인화락(戶戶富實 人人和樂)’을 꿈꿨다고 합니다. 수원 화성은 지금까지도 잘 보존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인정되어 1997년 12월 3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답니다. 정조 대왕의 애민사상과 효심을 기리는 ‘정조 대왕 능행차’ 축제도 수원시, 화성시, 서울시가 협력하여 매년 열리고 있으니 방문해보세요.

*호호부실 인인화락 : 집집마다 부자가 되고 사람마다 즐겁게 한다.



정조 대왕 (1752~1800)

조선 제22대 **‘정조 대왕’**의 이름을 이용해서 **‘정조로’**라고 지었어요.

정조로

시작하는 곳
화성시 진안동 557-3

시작

길이 11.169m

끝나는 곳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70

끝

★ '흥선 대원군'이 머물렀던 곳이 '흥선로'로 쓰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시작하는 곳
의정부시 가능동 311-120

시작

끝
의정부시 의정부동 205-16

길이는 1.863m

흥선로

흥선 대원군은 조선 제26대 왕인 고종의 아버지로 어린 고종을 대신해 나라일에 많은 관여를 했어요. 당시 조선은 특정 가문의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정치로 인해 부정부패가 심했고, 왕의 권한은 아주 약해져 있었지요. 흥선 대원군은 땅에 떨어진 조선 왕조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왕실의 임진왜란 때 불에 타서 없어진 왕실의 상징 '경복궁'을 다시 지었어요.

그리고 왕권을 약화시키고 부패한 세도정치를 하는 안동 김씨 세력을 몰아내고, 백성을 힘들게 했던 세금 제도를 개혁해서 양반도 평민도 모두 공평하게 세금을 내는 '호포제'를 시행했대요.



또 '사창'이라는 마을 공동 곡식 창고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저렴하게 곡식을 빌려 갈 수 있도록 하고, 오랜 세월 동안 *폐단이 심했던 전국 700여개가 넘는 서원을 *철폐하여 47개의 중요한 서원만을 남기는데 성공했어요. 이처럼 흥선 대원군은 훌륭한 개혁을 해낸 인물이기도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다른 나라와 통상·교류를 맺지 않는 쇄국정책을 펼쳐서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답니다.

*폐단 : 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
*철폐 : 전에 있던 제도나 규칙 따위를 건어치워서 없앴

1871년 우리나라에 미국이 군사와 군함으로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당시 촉망받던 어재연 장군은 임금의 명을 받아 6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요.

성능 좋은 무기를 보유한 미군은 해상에서는 *함포로 사격하고 지상에서는
 *야포로 사격하며 총공세를 벌였으나, 어재연 장군 부대는 화살과 탄약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돌과 대포알 등을 던지며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재연 장군은 이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어재연 장군의 생애를 보면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알 수 있어요.

- * 함포 : 군함에 장비한 화포
- * 야포 : 야전에서 주로 쓰는 대포

어재연 장군 (1823~1871)

프랑스와 미국에 맞서 싸워 나라를
 지킨 '어재연장군'의 이름을 반영했어요

어재연로

시작하는 곳
 이천시 중리동 231



길이는 578m



끝나는 곳
 이천시 창전동 147-7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명성황후는 충명함이 주변에 널리 알려져 흥선 대원군은 자신의 아들 고종의 왕비로 만들어요.

왕비가 된 명성황후는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 정치와 국제 교류에 눈이 밝아서 일본이 조선을 간섭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간섭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러시아 세력을 이용하여 일본을 추방하려고 했어요. 이 일을 안 일본은 명성황후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 자객을 궁중에 잠입시켜 명성황후를 처참하게 죽이고 말아요. 이것을 우리는 '을미사변(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고 불러요.



명성황후 (1851~1895)

★ '명성황후' 생가가 근처에 있어서 '명성로'로 도로명을 지었어요.

시작하는 곳
여주시 점봉동 573

시종
끝나는 곳
여주시 매룡동 92-4

길이는 4.586m

명성로

안재홍 (1891~1965)

안재홍의 생가가 근처에 있어
'안재홍로'로 도로명을 지었어요

시작하는 곳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687-15



길이는 2.669m



끝나는 곳

평택시 서정동 598-27

안재홍로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자 안재홍은 해방을 위해 상하이 임시정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독립을 계획했어요. 일본에 유학을 가서 청산학원과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1914년부터 본격적으로 민족운동을 시작했지요.

3.1운동 직후 상해에 임시정부가 생기자 안재홍은 서울에서 비밀리에 대한민국 청년외교단을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돕고, 신문사에 들어가 10일에 7편의 사설을 쓰는 등 언론을 통해 우리 민족의 독립에 기여했어요. 이 일이 발각되어 안재홍은 여러 차례 감옥에 가고 모진 고문도 당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민족 해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독립운동가랍니다.



발 행 일 : 2018년 12월

발 행 처 : 경기도 토지정보과 (031-8008-493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가)

참 여 자 : 임여선, 조창희, 서은주, 진주호, 김수민

도움을 주신 분 : 각 시·군 도로명주소 담당자 및 역사 전문가

경기문화재단 김지옥 수석연구관

홈페이지 : <https://ebook.gg.go.kr/>

제 작 : 하움출판사

일러스트 : 김화연

편 집 : 강태연